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2분기 GDP 연율 3.3% 성장...기업 투자 활발
- WSJ: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 안정세
- Bloomberg: 연준 이사 Cook, 트럼프의 해고 시도에 소송 제기

[미국 금융]

- Bloomberg: 단기 국채가 하락세...강한 경제 데이터로 금리 인하 베팅 약화
- Bloomberg: 엔비디아, 2년간 AI 봄 이후 성장 둔화 전망

[미국 생활]

- WSJ: 암트랙, 차세대 Acela 열차 선보여...기존 열차보다 느려

[주택]

- Reuters: 계약 중인 기존 주택 판매 예상외 감소

[에너지]

- Bloomberg: 유가 안정세...미국의 인도 비난에도 불구하고, 공급 과잉 우려 커져
- Bloomberg: EXXON, "석탄 사용 증가로 글로벌 목표 달러 지연"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Bloomberg: 미 제조업체들, 수요보다 더 많은 배터리 생산할 듯
- WSJ: Best Buy, 가격 인상에도 매출 증가세
- Bloomberg: Dollar General, 매출 전망치 상향 조정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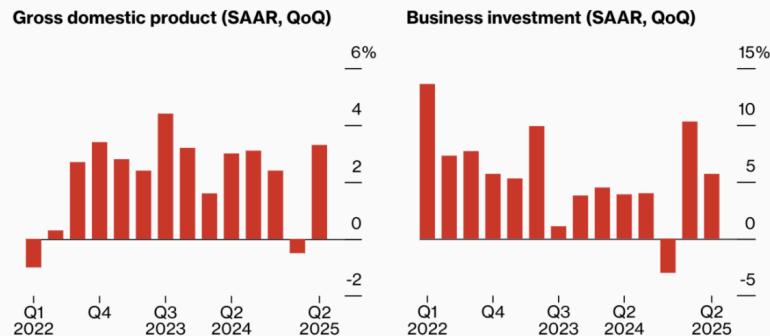
Bloomberg: US Economy Expands at Revised 3.3% Rate on Stronger Investment

미 2분기 GDP 연율 3.3% 성장...기업 투자 활발

- 미 2분기 경제성장률이 당초 추정치보다 약간 더 빠르게 성장했다. 비즈니스 투자와 무역 확대에 따른 것이다.
- 미국 내 재화와 비즈니스 가치를 측정하는 경제성장(인플레 조정)이 연율 3.3%의 성장을 가져왔다고 연방 경제분석국이 오늘 목요일 밝혔다. 당초 추정치는 3% 였다.
- 특히 비즈니스 투자는 5.7%나 확대되었다. 특히 운송 장비 투자 규모가 컸다.

US Economy Expanded at Faster Pace in Second Quarter

Upward revision reflected bigger increase in business investment



Sourc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Bloomberg 기사

WSJ: Jobless-Claims Data Have Been Reassuring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 안정세

- 지난주 미 신규 실업청구건수는 19만1천건이라고 연방 노동국은 오늘 목요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3년과 2024년 8월의 숫자가 같은 수준이었다.
- 지난 12개월 동안에도 주로 21만건에서 25만건 사이로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다.
- 현재의 고용 상황은 고용도 낮고 해고도 낮은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Jobless-Claims Data Have Been Reassuring

By Matt Grossman, Reporter

Initial jobless claims

■ 2022 ■ 2023 ■ 2024 ■ 2025

450 thousand



Note: Not seasonally adjusted, to better show year-over-year comparisons
Source: Labor Department

WSJ 기사

Bloomberg: Lisa Cook Sues Trump Over Move to Oust Her From Fed Board

연준 이사 Cook, 트럼프의 해고 시도에 소송 제기

- 트럼프는 모기지 신청서에 내용을 위조(주거지 주소 거짓 기재)했다며 해고를 시도하고 있는 연준 이사 Lisa Cook은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법적 싸움으로 비화된 셈이다.
- 그녀는 오늘 목요일 연방 법원에 재소하면서 자신의 임기인 2038년까지 계속 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자신을 해임하려는 노력을 긴급하게 막아달라고 연방 판사에 요청했다.
- 트럼프는 연준의 파월 의장도 사직하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파월 의장을 이를 거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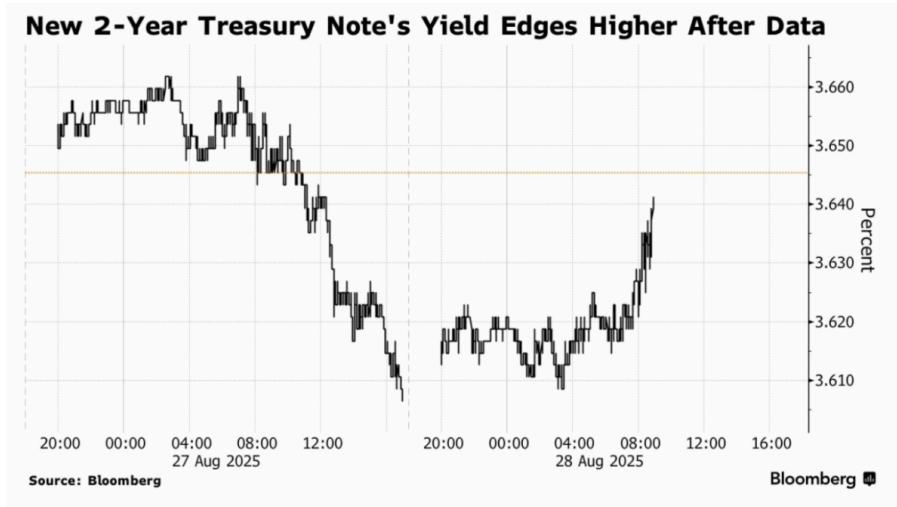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Short-Dated Treasuries Fall as Strong US Data Dents Rate Bets

단기 국채가 하락세...강한 경제 데이터로 금리 인하 베팅 약화

- 미국의 강한 경제 성장과 고용 데이터로 미 단기 국채가격이 약간 하락세를 보였다.
- 오늘 목요일 미 2분기 경제 성장이 당초 3%에서 3.3%로 수정되면서 2년물과 5년물 국채 금리는 상승했다.
- 향후 연준 금리 결정과 연결된 스왑 선물에 따르면 올해 10월에 0.25%의 금리 인하를 포함해 올해 말까지 두차례 금리 인하가 반영되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Nvidia Forecasts Decelerating Growth After Two-Year AI B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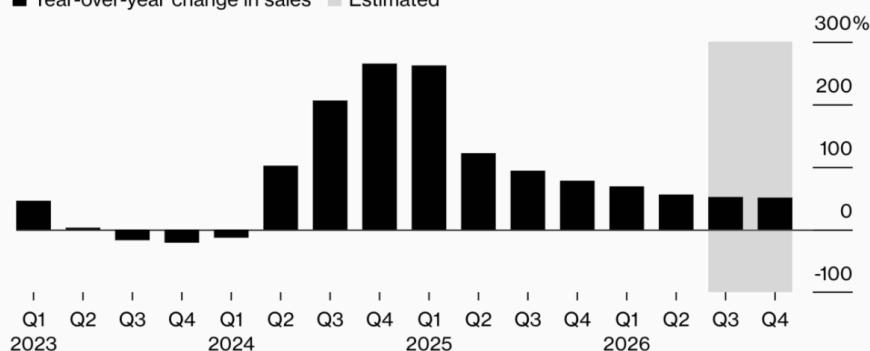
엔비디아, 2년간 AI 봄 이후 성장둔화 전망

- 엔비디아가 3분기 매출을 약 540억 달러로 예측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일부 애널리스트들의 예측치인 600억 달러보다 낮다.
-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중국 시장의 AI 칩 수출 규제를 완화했으나, 이러한 조치가 아직 매출 회복으로는 이어지고 있지는 않다.
- 엔비디아 CEO Jensen Huang은 이에 대해 “2020년대 말까지 AI 인프라에 3~4조 달러의 지출을 예상한다”며 AI 인프라 구축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를 일축했다.
- 엔비디아의 2분기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은 411억 달러로 규모가 가장 큰 수치이나 평균 추정치에는 못 미친다. 이는 데이터 센터 운영 지출로 인해 마진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Nvidia Sales Growth Decelerates From Eye-Popping Levels

Revenue had been doubling or tripling in recent quarters

■ Year-over-year change in sales ■ Estimated



Sources: Company reports,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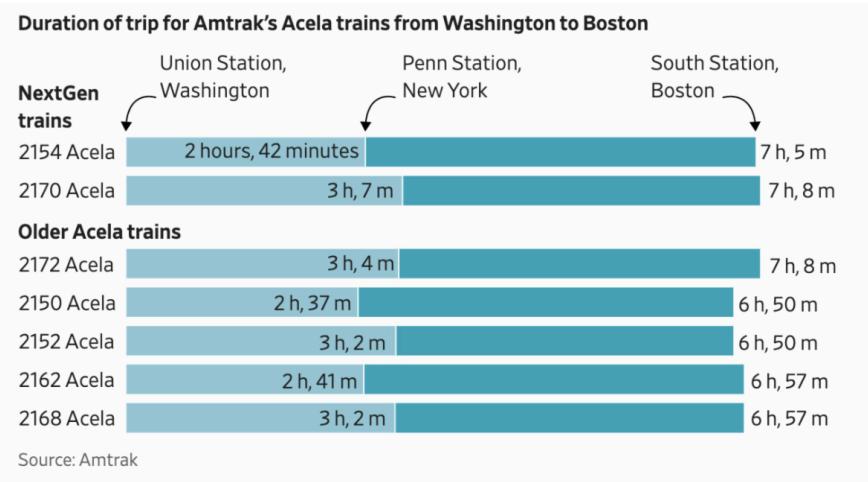
Bloomberg 기사

[미국 생활]

WSJ: Amtrak's New Acela Trains Are Here. They're Moving Slower Than the Old ones.

암트랙, 차세대 Acela 열차 선보여...기존 열차보다 느려

- 암트랙이 새로운 고속 열차 Acela를 선보였지만 아직은 실제로 더 빠르지 않다. Acela 열차 5대가 오늘 운행을 시작해 워싱턴-보스턴 노선의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다.
- 이 열차는 운행을 완료하는 데 최소 7시간 5분이 소요되는데, 이는 기존 Acela 열차의 평균 소요 시간인 6시간 56분에서 늘어난 수치이다.
- 암트랙은 이에 관해 차세대 열차 속도의 제한 요인은 노후 노선이라고 밝혔다. 통근 및 화물 열차가 공용으로 운행되는 선로를 사용해 고속으로 운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 Acela 열차는 기존 Acela 열차보다 시속 10마일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데, 노후된 인프라로 인해 특정 구간에서만 최고 속도로 운행할 수 있다.
- 암트랙은 이 열차에 대해 좌석이 더욱 넓어지고, 고속 Wi-Fi를 이용할 수 있으며, 승객용 전원 콘센트가 배치되었음을 강조했다.



WSJ 기사

[주택]**Reuters: US pending home sales fall more than expected in July**
계약 중인 기존 주택 판매 예상외 감소

- 높은 모기지율과 노동시장 둔화에 따른 주택 구입 위축으로 7월에 계약 중인 기존 주택의 판매 건수가 예상보다 떨어졌다.
- 오늘 목요일 전국부동산협회의 자료에 따르며 7월 계약중인 기존 주택 판매가 0.4% 하락했다.
- 관련 전문가들은 모기지율과 재고 등이 약간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들의 구매 의욕이 약한 상태라고 말했다.

Reuters 기사

[에너지]**Bloomberg: Oil Steadies as US Berates India, Surplus Concerns Flare Ag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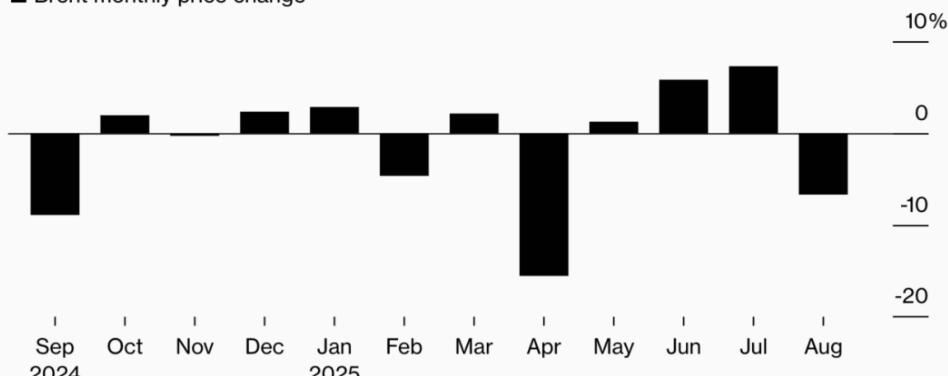
유가 안정세...미국의 인도 비난에도 불구하고, 공급 과잉 우려 커져

- 미국이 인도에 러시아산 원유 구매에 압박을 가하고 공급 과잉이 임박하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석유는 최근 큰 변동이 없었다.
- 브렌트유는 배럴당 68달러 아래로, 8월 내내 65달러에서 70달러 사이에서 거래되었다.
- 애널리스트들은 “공급 과잉이 예상되어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대한 관세와 제재로 인해 유가는 60달러대 후반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이에 대해 “연말까지 공급 과잉이 예상되나, 10억 배럴의 여유 저장 공간이 확보되어 추가 공급량을 안정적으로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Oil Is Heading for a Monthly Drop

Brent has largely traded between \$65 and \$70 this month

■ Brent monthly price change



Source: ICE, Bloomberg

Bloomberg 기사

Bloomberg: Exxon Says Global Emissions Goals Have Slipped as Coal Use Rises

EXXON “석탄 사용 증가로 글로벌 목표 달려 지연”

- 소비자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과 석탄 사용이 회복되면서 엑손 모빌은 글로벌 에너지 제로 배출 목표가 2050년 이후로 미뤄지겠다고 말했다.
- 이 회사의 전망에 따르면 글로벌 배출은 2050년까지 2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간 협의체(IPCC)의 기준 부합에 필요한 3분의 2 하락에 못미친다는 것이다.
- 이 회사에 따르면, 오일 수요는 2030년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2050년까지 정체 상태로 하루당 1억 달러 배럴 사용에 계속 머무를 것이며 석탄은 2050년까지 글로벌 에너지 비중의 1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Exxon Sees Fossil Fuels Still Dominating in 2050

Percent of global energy mix

	2024	2050 - Exxon	2050 - IEA	2050 - IPCC
Oil & Natural gas	56	55	45	38
Coal	25	14	13	5
Nuclear	4	6	7	10
Bioenergy	9	10	11	17
Other renewables	6	15	24	30

Source: Exxon

Note: IEA forecast under STEPS scenario; IPCC is C3: "Likely Below 2C"; Other renewables includes solar, wind, hydro and geothermal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Bloomberg: US Manufacturers Will Produce More Batteries Than the Country Nee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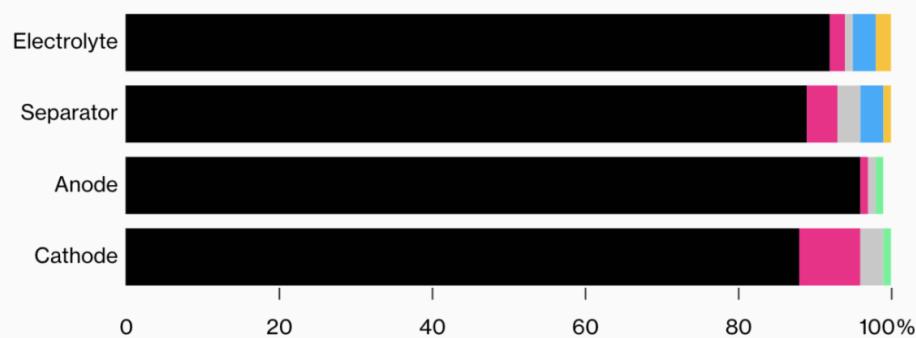
미 제조업체들, 수요보다 더 많은 배터리 생산할 듯

-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철회함에 따라 2030년까지 미국 배터리 제조업체들의 공급이 크게 초과될 수 있다.
- 블룸버그NEF는 미국이 2030년까지 약 378kwh의 배터리를 사용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발표된 전망치보다 56% 낮은 수치이다.
-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이미 트럼프 정부의 출범전에 194kwh의 배터리 용량을 확보했고, 2030년까지는 428kwh의 배터리가 추가로 증산될 가능성이 높아 공급 과잉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 이에 따라 더 많은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생산 계획을 보류하거나 프로젝트를 완전히 취소한 상황이다.
- BloombergNEF 전문 애널리스트 Matthew Hales는 “수요 감소 및 청정 기술 지원 삭감이 맞물려 더 많은 공장 폐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China Has Vast Majority of the World's Battery Component Capacity

Share of production capacity in 2024

■ China ■ South Korea ■ Japan ■ Europe ■ US ■ Rest of world



Source: BloombergNEF

Bloomberg 기사

WSJ: Best Buy Posts Surprise Sales Increase as Consumer Spending Holds Up

Best Buy, 가격 인상에도 매출 증가세

- Best Buy의 2분기 매출이 1.6% 증가했다. 이는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인 0.5% 감소를 뛰어넘는 수치이다.
- 또한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 올해 전체 매출 가이던스도 4백11억불에서 4백19억불 사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 이 회사는 “하반기 관세 영향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지난 분기에 제시했던 연간 실적 전망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 베스트 바이의 2분기 순이익은 1억 8,600만 달러로, 이는 전년 동기 2억 9,100만 달러보다 감소한 수치이다.
- 애널리스트들은 최근 출시된 PC 및 닌텐도 스위치 게임 콘솔의 판매가 강세를 보이지만, 주택 시장의 침체로 TV와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약한 수요를 예상했다.
- 베스트 바이는 Back to school 이벤트에 힘입어 8월에도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고, 3분기에는 비슷한 수준의 매출 성장을 전망한다고 밝혔다.

WSJ 기사

Bloomberg: Dollar General Lifts Sales Outlook as Shoppers Seek Bargains

Dollar General, 매출 전망치 상향 조정

- 할인 체인점인 이 회사는 저렴한 제품을 찾은 고객들의 지출이 계속 되고 있다며 예상 외 매출 성과를 보이고 향후 전망도 상향조정했다.
- 동일 점포 매출 관련 2분기 실적도 2.8% 성장했으며 이번 2025년 회계연도에 매출이 2.6%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

트럼프, 관세·협박으로 타국에 '기후변화 대응 축소' 압박 국제해사기구의 선박 온실가스 배출 제한 찬성국에 보복 예고 무역 합의마다 美 원유·가스 구매..."다른 나라도 화석연료로 돌아가길"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막고 화석연료를 장려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관세와 협박을 통해 이를 강요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해사기구(IMO)가 국제 해운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넷제로 프레임워크' 도입에 찬성하는 국가들을 관세, 비자 제한, 항만 수수료로 보복하겠다는 입장이다.

IMO에서 오는 10월 공식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이 프레임워크는 대형 선박에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선박은 초과량을 상쇄할 일종의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9/7/25, 12:36 PM

Email from KOCHAM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